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9.16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지난주 한눈에

이번 주는 물가지표보다 채권시장 금리가 더 크게 움직인 한 주였다. 미국·유럽·한국 국채금리가 나란히 연중 최고 수준을 다시 뚫었고, 지표 자체보다 "긴축이 얼마나 더 길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리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99%로 1년 기준 최고권(백분위 100)까지 올라 지난 한 주에만 21.7bp(1bp=0.01%포인트) 뛰었다. 유럽(EU10Y 3.53%, 주간 +14.7bp)·한국(KR10Y 4.57%, 주간 +21.6bp)도 같은 방향으로 사상 최고권을 경신했다. 금리가 이렇게 뛰면 기업·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매력에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 여파로 코스피는 한 주간 4.4% 내렸고 니케이도 4.4% 빠졌으며, 미국 S&P500(-1.3%)·나스닥(-1.2%)도 동반 하락했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한 주 만에 17.7% 뛰었다. 성장·물가 지표가 아직 급격한 악화를 보내지 않는데 채권·주식이 함께 흔들렸다는 건, 실물보다 16일 미국 연준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지표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미국 생산자물가(PPI)는 전년비 5.4%까지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유가발이었고, 정작 소비자물가(CPI) 근원지수는 오히려 소폭 낮아져 기초적 물가압력이 급가속했다고 보기는 이른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3.8%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석탄·비철금속 등 상류 원자재에서만 올랐고, 사회용자총량(기업·가계의 신규 자금조달 총량)은 예상치의 80%에 그쳐 내수 신용 위축이 더 심해졌다.

반면 영국은 제조업 생산(전년비 2.6%)·GDP(전년비 1.6%)가 나란히 예상을 웃돌며 유럽에서 드물게 견조한 성적을 냈다.

자금 흐름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한 주간 채권형·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원자재 펀드는 자금이 몰렸다(유입비중 59.7%) — 금리 불안 속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 헤지 자산으로 옮겨간 흔적이다.

다음주 꼭 볼 것

가장 큰 변수는 9월 16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다. 선물시장이 25bp 인상(3.75→4.00%대)을 99% 반영하고 있어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에 가깝고, 관전 포인트는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다. 시장은 이미 10월(인상 99%)·12월(인상 100%) 회의까지 추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 예상보다 매파적(긴축적)이면 이번 주 나타난 채권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소매판매도 중요하다. 전월 -0.6%에서 0.8%로의 반등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확인되면 소비 회복력이 추가 긴축 명분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힌다. 18일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릴 것으로 전망돼 엔화·글로벌 자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21일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째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내수 부진 속 완화 전환 지연이 계속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09	중국	생산자물가(PPI)	3.6	3.5	3.8	전년비 %	8월 중국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8%, 전월 대비 0.4% 올라 레벨과 월간 흐름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그 상승은 석탄·비철금속·에너지 같은 상류 원자재 부문에서만 나온 것이고 소비와 직결되는 생활자재와 가공 단계 물가는 여전히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 즉 이번 지표는 중국 물가 전반의 회복이 아니라, 상류 가격만 오르고 하류로는 전달되지 않는 이중구조가 이번 달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신호다. [심층]
09/09	중국	소비자물가(CPI)	0.3 0.8	-0.1 0.5	0.4 0.8	전월비 % 전년비 %	8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 전년동월비 +0.8%, 코어 전년동월비 +1.0%로 둘 다 플러스를 유지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반증했다. 다만 코어의 월간 상승폭이 7월보다 늘리면서 물가 수준은 방어됐어도 그 밑을 받치는 수요 탄력은 여전히 얇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다. [심층]
09/09	한국	고용보고서	—	—	—		8월 고용은 계절조정 기준 단기 모멘텀이 뚜렷이 개선됐지만, 전년동월비 증가분은 사실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한 업종에서 나왔고 제조업·건설업·정년층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 노동시장은 여전히 '정책 업종 의존형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심층]
09/10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5.0	206.0	206.0	천명	9월 5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발표되며 해고 즉 지표와 재취업 즉 지표가 모두 역사적 저위권에서 유지됐고, 이는 노동시장 냉각을 통한 임금·물가 완화 경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긴축 유지 기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워힌다. [심층]
09/10	미국	생산자물가(PPI)	0.4 5.3	0.0 4.7	0.4 5.4	전월비 % 전년비 %	8월 미국 생산자물가는 최종수요 기준 전월비 0.4%, 전년비 5.4%로 7월(0.1%, 4.8%)보다 뚜렷하게 올라섰고, 이 상승의 4분의 3 이상이 에너지 가격 급등 한 항목에서 나왔다. 유가가 다시 생산자 출하 단계에서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다만 같은 달 근원 지표(코어코어)는 오히려 둔화해 물가의 기초 자체가 가속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심층]
09/10	미국	기준주택 판매	3.98	4.06	3.98	백만호	미국 기준주택 판매는 예상·실제 모두 3.98 백만호로 부합, 서프라이즈 없이 현 수준을 재확인했다.
09/10	유로존	기준금리 결정	2.5	2.25	2.5	%	유로존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2.5%로 동결돼 ECB 정책 경로에 새로운 시그널은 없었다.
09/10	일본	생산자물가(PPI)	0.0 7.4	0.1 7.2	-0.2 7.6	전월비 % 전년비 %	2026년 8월 일본 국내기업물가지수는 전월비 -0.2%로 하락 전환했고 수입물가도 엔화·계약통화 기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상류 비용압력이 실제로 꺾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시장의 주된 걱정거리인 지금 국면에서 이는 분명한 호재이며, 이달치 헤드라인 하락은 계절요인이나 환율효과를 견어내도 그대로 남는 실체다. [심층]
09/11	미국	소비자심리(미시간대, 속보)	51.0	51.7	47.8	p	9월 뉴욕 연은(엠페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서베이는 활동 확산 폭이 크게 좁아졌지만 이는 병목에서 비롯된 둔화였고, 정책 핵심 변화는 지불가격이 5포인트 올라 최근 4년 최고치를 다시 넘어섰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경계 대상인 지금 국면에서 이번 지표는 경기 완화보다 물가 압력 심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결과로 워힌다. [심층]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11	미국	소비자물가(CPI)	0.4 3.4	0.1 3.4	0.4 3.4	전월비 % 전년비 %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유가발 충격이 소비자 단계로 실제 전이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킨 자료다. 헤드라인 전월비는 0.1%에서 0.4%로 뛰었고 그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이 휘발유(+3.9%)에서 나왔다고 미 노동통계국(BLS)이 직접 밝혔지만, 근원 전년동월비는 2.5%에서 2.4%로 오히려 내려가 기저 인플레이션까지 매파적으로 입증하는 수치는 아니었다. 연준의 동결 장기화라는 기본 노선을 유지시키는 자료로 읽는다. [심증]
09/11	영국	제조업 생산	0.2 2.0	-0.5 0.5	0.9 2.6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9%·전년비 2.6%로 예상(0.2%/2.0%)을 모두 상회, 제조업 회복이 뚜렷하다.
09/11	영국	GDP(월간)	0.0 1.2	0.3 1.1	0.4 1.6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월간 GDP는 전월비 0.4%·전년비 1.6%로 예상(0.0%/1.2%)을 모두 상회, 성장이 예상보다 견조했다.
09/11	영국	GDP(3개월 이동)	0.3	0.4	0.4	%	영국 3개월 이동평균 GDP도 0.4%로 예상(0.3%)을 상회, 제조업·GDP 지표가 함께 개선을 뒷받침했다.
09/14	중국	사회용자총량	2040.0	1410.0	1660.0	십억위안	중국 사회용자총량은 1,660 십억위안으로 예상(2,040)을 크게 밑돌아 신용 임펄스 둔화 심화를 재확인했다.
09/14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400.0	- 340.0	60.0	십억위안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은 60 십억위안으로 예상(400)의 15%에 그쳐 내수 신용수요 위축이 뚜렷하다.
09/14	일본	산업생산	—	0.1	-0.2	전월비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확보치는 생산이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0.2% 줄고 출하는 2.1% 늘어난 엇갈린 그림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생산 감소는 6월 1.9% 급증의 되돌림이고 출하 증가는 수송기계(자동차 제외) 한 개 업종의 대형 납품이 섞인 결과여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의를 밀어붙일 근거도 꺾을 근거도 되지 못하는 중립적인 숫자로 봐야 한다. [심증]
09/15	유로존	무역·수출입	—	1.8	5.0	십억€	유로존의 7월 상품무역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35억 유로 늘어난 142억 유로로,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개선이지만, 1~7월 누적 흑자는 758억 유로나 줄어든 상태라 전체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른다. [심증]
09/15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	40.0	34.2	34.7	p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는 34.7로 예상(40.0)을 밑돌아 유럽 성장 기대가 소폭 후퇴했다.
09/15	독일	ZEW 현재상황지수	-52.1	-61.1	-47.1	p	독일 ZEW 현재상황지수는 -47.1로 예상(-52.1)보다 덜 부진, 현재 경기 판단은 소폭 개선됐다.
09/15	프랑스	소비자물가(HICP, 확정)	0.8	0.8	0.7	전월비 %	프랑스 HICP 확정치는 전월비 0.7%로 예상·이전(0.8%)을 소폭 하회, 물가 모멘텀이 살짝 둔화됐다.
09/15	프랑스	소비자물가(HICP)	2.7	2.7	2.6	전년비 %	프랑스 HICP 확정치 전년비는 2.6%로 예상·이전(2.7%)보다 낮아 유로존 디스인플레이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09/15	중국	소매판매	0.8	0.6	0.4	전년비 %	8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에 그쳐 7월(0.6%)보다 오히려 둔화됐고, 계절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흐름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중국 내수 소비가 뚜렷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증]
09/15	중국	실업률	—	5.2	5.3	%	8월 중국 도시조사실업률은 5.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이는 풀업 시즌 신규 인력 흡수가 늦어지는 계절적 현상이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없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동결·관망 기조를 흔들 재료가 되지 못한다. [심증]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15	중국	고정자산투자	-7.2	-6.7	-7.2	전년비 %	중국 1~8 월 누계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듦, 산업과 지역과 소유형태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자본지출 수축이 나타났다. [심층]
09/15	중국	산업생산	4.8	4.5	5.2	전년비 %	8 월 중국 공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5.2% 늘며 전월보다 뚜렷이 빨라졌고, 계절조정 전월비도 함께 개선돼 이번 가속은 착시가 아닌 실재하는 흐름이다. 다만 그 가속은 제조업, 그중에서도 고부가 전자·설비 품목에 집중된 편중된 반등이며,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지배적인 국면에서는 제한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심층]
09/15	한국	수출 증가율	—	68.7	68.7	전년비 %	한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비 68.7%로 이전치와 동일, 고성장세가 유지됐다(전망치 없음).
09/15	한국	수입 증가율	—	22.5	22.4	전년비 %	한국 수입 증가율은 전년비 22.4%로 이전치(22.5%)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전망치 없음).
09/15	영국	실업률	5.0	4.9	4.9	%	영국 실업률은 4.9%로 예상(5.0%)보다 낮아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함을 확인했다.
09/15	영국	민간 정규급여(3 개월 평균)	—	2.8	2.9	전년비 %	영국 민간 정규급여(3 개월평균)는 전년비 2.9%로 이전(2.8%)보다 소폭 올라 임금압력이 재차 확대됐다(전망치 없음).
09/15	영국	PAYE 고용자 수 변동	—	-13.0	-26.0	천명	영국 PAYE 고용자 수는 2.6 만명 감소해 고용 둔화 신호를 보냈다(전망치 없음).
09/15	영국	실업수당 청구자 변동	—	-11.0	27.8	천명	영국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78 만명 증가, PAYE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겹쳤다(전망치 없음).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16	미국	기준금리 결정	3.875	3.625	%	선물시장이 인상 99%를 반영해 3.75~4.00%로의 25bp 인상은 기정사실, 관전포인트는 점도표·파월 톤의 추가 긴축 강도다.
09/16	미국	수입물가	—	6.0	전년비 %	수입물가 전년비는 전월 6.0%에서의 둔화 여부가 관건, 관세 전가 압력 지속 여부를 가늠할 지표다.
09/16	미국	소매판매	0.8 —	-0.6 5.01	전월비 % 전년비 %	소매판매 전월비는 -0.6%에서 0.8%로의 반등이 예상되나, 실현되면 소비 회복력이 매파 기조를 뒷받침한다.
09/16	영국	서비스 소비자물가	0.3 3.5	0.6 3.4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서비스 CPI 전년비 3.4%→3.5% 가속 전망, 서비스 인플레이 고착이 BOE 인상 배제 못하게 하는 변수다.
09/16	영국	소비자물가(CPI)	0.5 3.1	0.3 2.9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CPI 전년비 2.9%→3.1% 가속 전망, 전월비도 0.3%→0.5%로 확대돼 인플레이 재가속 신호에 주목.
09/17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8.0	206.0	전명	실업수당청구 206→208 전명, 완만한 수준 유지로 예상돼 고용시장 급랭 신호는 아직 아니다.
09/17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30.5	47.4	p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47.4→30.5 로 큰 폭 둔화 전망, 제조업 심리 위축 속도가 관건.
09/17	미국	주택착공	1.309	1.239	백만호	주택착공 1.239→1.309 백만호로 개선 전망, 고금리 환경에서도 건설활동 반등 여부를 확인한다.
09/17	유로존	소비자물가(CPI, 확정)	0.4 3.3	0.2 3.3	전월비 % 전년비 %	유로존 CPI 확정치 전년비 3.3%로 잠정치 유지 전망, 전월비는 0.2%→0.4%로 확대돼 재가속 여부 주목.
09/17	일본	소비자물가(CPI, 신선식품 제외)	1.8	1.8	전년비 %	일본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 전년비 1.8%로 전월과 동일 전망, BOJ 인상 명분 유지 여부를 가늠.
09/17	일본	소비자물가(CPI, 총합)	—	1.9	전년비 %	일본 종합 CPI 전년비는 전월 1.9%에서의 추가 둔화 여부가 관건이다.
09/17	영국	기준금리 결정	3.75	3.75	%	영국 기준금리 3.75%로 동결 전망, 인플레이 재가속 속 정책 변화 시그널 여부를 본다.
09/18	미국	산업생산	0.3	0.2	전월비 %	산업생산 전월비 0.2%→0.3%로 소폭 개선 전망, 제조업 회복 속도를 확인한다.
09/18	일본	기준금리 결정	1.25	1.0	%	일본 기준금리 1.0%→1.25%로 인상 전망, BOJ 의 '페이스→사이즈' 전환 가이던스 실현 여부가 핵심.
09/18	영국	소매판매	-0.2 1.9	-0.5 1.6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소매판매 전월비 -0.5%→-0.2%로 낙폭 축소, 전년비는 1.6%→1.9%로 개선 전망.
09/18	영국	소매판매(연료 제외)	-0.2 1.9	-0.9 2.3	전월비 % 전년비 %	연료 제외 소매판매 전월비 -0.9%→-0.2%로 개선되나 전년비는 2.3%→1.9%로 둔화 전망, 방향 엇갈림에 주목.
09/20	영국	주택가격(Rightmove)	— —	-2.0 -1.0	전월비 % 전년비 %	Rightmove 주택가격은 전월 -2.0%·전년 -1.0%에서의 낙폭 추이 지속 여부를 본다.
09/21	중국	기준금리 결정	—	3.0	%	중국 기준금리는 8 개월째 동결 흐름(LPR 3.0%) 연장이 유력, 내수 위축 속 완화 전환 시그널 여부를 주시.
09/22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	-15.5	p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15.5p 에서의 개선 여부로 소비 심리 저점 통과를 가늠한다.
09/23	미국	서비스업 PMI(S&P) 속보	—	56.5	p	미국 서비스업 PMI 속보는 전월 56.5p 에서의 둔화 폭이 관건, 고금리 하 서비스 수요 지속력을 확인.
09/23	독일	종합 PMI 속보	—	51.8	p	독일 종합 PMI 속보는 전월 51.8p 확장세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09/23	프랑스	종합 PMI 속보	—	48.5	p	프랑스 종합 PMI 속보는 전월 48.5p 로 수축권 지속 중, 낙폭 추이가 유로존 성장 하방 압력을 가늠하는 잣대.
09/23	독일	서비스업 PMI 속보	—	49.7	p	독일 서비스업 PMI 속보는 전월 49.7p 수축권 재진입 여부가 관건이다.
09/23	영국	제조업 PMI 속보	—	51.7	p	영국 제조업 PMI 속보는 전월 51.7p 확장세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9/23	영국	종합 PMI 속보	—	52.5	p	영국 종합 PMI 속보는 전월 52.5p 에서의 둔화 폭이 관건, 서비스 주도 성장 지속력을 가늠한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